사상체질의학회지 2011;23(1):115-124
J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Vol. 23, No. 1, 2011:115-124
http://www.esasang.com

외국인이 인식하는 한의학 의료관광의 가능성 및 사상체질진단 경제적 가치평가

김형순 · 이희승* · 차병헌** · 주종천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과
*호남대학교 관광경영대학 호텔경영학과
**을지대학교 보건과학대학 임상병리학과

Abstract

Potential Ability of Traditional Korean Medical Tourism and Economic Valuation of Sasang Constitutional Typology Diagnosis from Foreigner's Perspective

Hyoung-Soon Kim, Hee-Seung Lee*, Byung-Hun Cha**, Jong-Cheon Joo
Dep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Wonkwang Univ.
*Dept. of Hotel management, College of Tourism and Business Management, Honam Univ.
**Dept. of Biomedical Laboratory Science, College of Health Science, Eulji Univ.

1. Objectives : This study aimed to provide practical insights on the development of traditional Korean medical tourism and maximize the satisfaction of foreign patients. The main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also to evaluate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S.C.M.) diagnosis cost from foreigners' perspectives.

2. Methods : For this study,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tourists to Korea between January 3, 2010 to February 20, 2010. The sample used in this study was mainly composed of Japanese, Chines and US/Canada, because they are the major national visitor origin group to Korea. The primary data were collected by questionnaire survey using a standardized instrument with a convenience sampling procedure, and efforts of the interviews involved an on-site, self-administrated questionnaire to those sitting or visiting tourist attractions. The total size of the sample was 276 of which 275 showed no missing value against the factors needed for final analysis and were for analysis as an effective sample. SPSS 13.0 for window was used to analyze the collected data on which descriptive statistics and the Limited Dependent(LIMDEP) 8.0 program was used in estimating the willingness-to-pay(WTP) for traditional Korean medical tourism through the Contingent Valuation Method(CVM). A dichotomous choice question form of a CVM was applied to estimating the value.

3. Results and Conclusion
   1. There was significant statistical relationship between attributes when considering medical tourism destination and socio-demographic profiles such as age group, nationality, educational level and occupation.
   2. In the level of recognition on Korean medicine, north Americans showed low level of recognition compared to other nationalities. In addition, in terms of age group, 20's and 30's showed low level of recognition on Korean medicine,
   3. In relation to the level of interest on Korean medicine, Japanese respondents had higher interesting level on Korean medicine. Also singles had higher level of interest.
   4. Regarding preferred Korean medical treatment program, there found significant statistical relationship between Korean medical treatment program and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5. The estimating result of the logit model showed that the variables affecting the WTP for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diagnosis were offered price and potential ability of medical tourism destination.
   6. In relation to WTP for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diagnosis, Japanese respondents showed a WTP of USD 62.69 and Chinese respondents showed USD 57.09. On the other hands, respondents from north America and other countries showed a WTP of USD 65.50.

In conclusion, from this study, the results found that the opportunities in tradition Korean medical tourism are immense and the possible rewards are numerous. It is time to continue to promote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and make the Korean medical tourism programs considering on nationalities, age group, gender and WTP.

Key Words : medical tourism, Korean traditional medicine,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willingness to pay.

• 접수일 2010년 09월 01일; 심사일 2010년 09월 02일; 승인일 2010년 10월 13일
• 교신저자 : 주종천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2가 142-1 원광대학교 전주한방병원 사상체질과
Tel : +82-63-270-1073 Fax : +82-63-270-1594
E-mail : jcjoo@wku.ac.kr

www.kci.go.kr

Ⅰ. 緖 論

의료관광은 전 세계적으로 1999년의 3,900억 달러에서 2019년에는 6,100억 달러의 거대시장으로서 성장이 예측되고 있을 만큼 최근 주목받고 있는 분야이다.[1]

인도의 경우 2004년 한 해 동안에 약 15만여 명의 외국인이 치료를 목적으로 인도를 찾았던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이 외에도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사아 같은 아시아 국가들이 의료관광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고 있다.[2] 하지만 우리나라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의료관광에 대한 인식부족과 각종 규제로 인하여 점진적인 틀이 마련되지 않고 있으며, 의료관광객들을 맞이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3,4]

아직까지 의료관광의 개발이 늦은 것은 그에 대한 연구개발이 미진하기 때문이다.[5] 그러나 성형외과와 피부과에서는 의료관광이 지닌 잠재력을 인식하고 중국, 일본인 등 동남아시아 환자 유치에 나서고 있다.[6]

경영학적 측면에서 관광객의 경제적 예측을 위하여 그동안 다양한 측정방법이 연구되어 왔다.[7-9] 관광산업분야에서도 관광시장은 관광목적, 구매욕구, 가격, 사용자, 인구통계, 경제, 지리, 심리 등의 특성변수를 기준으로 이익이 결정한 각각의 표적시장의 특성에 따른 적합한 마케팅 믹스(marketing mix)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시장세분화 기법을 다용하게 되었다.[10] 시장세분화는 제품에 대한 소비자집단들의 상이한 선호도에 대응하여 하나의 이질적인 시장을 다수의 소규모의 동질적인 시장으로 보는 것으로 시장의 고객을 동질적인 하위 그룹으로 세분하는 것이다.[11-13] 다양한 인종과 국가를 상대로 하는 의료관광에서는 이러한 시장세분화 방법을 통하여 마케팅 전략을 세워 효율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외국인들이 인식하는 우리나라 한의학의료관광의 발전가능성 및 진료 분야를 알아보고, 외국인들의 체질진단에 관한 생각을 알아보고, 체질진단의 가치평가를 실시함을 목적으로 조건부시장가치평가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을 이용하여 체질진단의 경제적 편익을 추정하여 유의한 결과를 얻어 이를 발표하는 바이다.

Ⅱ. 硏究 方法

1. 설문대상

서울시내 및 주변 관광지를 방문하고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2010년 1월 3일부터 2010년 2월 30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27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는데, 이중 1부를 제외하고 총 275개의 표본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2. 설문지 설계

설문지의 구성은 크게 응답자들의 인구통계적 특성, 의료관광과 한의학 진료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 및 가장 관심 있는 한의학 진료 분야, 한의학 의료관광을 위한 전제조건 그리고 우리나라의 사상체질진단의 경제적 가치로 이루어졌다.

3. 통계방법

수집된 자료는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PSS) 1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 t-검정(t-test), 교차분석(chi-square analysis), 로짓분석(logit analysis) 등을 실시하였으며, 계량경제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사상체질에 대한 가치를 추정하였다.

Ⅲ. 分析結果

1. 응답자의 특성 및 기초통계분석

국적으로는 북미인은 89명(32.4%), 일본인은 98명(35.6%), 중국인은 83명(30.2%), 기타 5명(1.8%)이었다. 성별로는 남성이 136명(49.5%), 여성 139명(50.5%)이었으며, 연령은 20세 이상부터 30세미만이 62명(22.5%), 30세 이상부터 40세 미만은 60명(21.8%), 40세부터 50세 미만이 57명(20.7%), 50세부터 60세 미만은 59명(21.5%), 60세 이상이 37명(13.5%)이었다. 교육정도를 살펴보면, 고등학교 졸업이하가 74명(26.9%), 2년제 대학교졸업이 54명(19.6%), 4년제 대학교 졸업 124명(45.1%), 대학원 졸업 이상이 20명(7.3%)이었다. 결혼여부는 미혼이 82명(29.8%), 기혼이 192명(69.8%)이었다. 직업은 자영업 48명(17.5%), 직장인 104명

www.kci.go.kr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N=275)

Characteristics	Category	No.	%	Characteristics	Category	No.	%
Nation	American	89	32.4	Education level	High school	74	26.9%
	Japanese	98	35.6		College	54	19.6%
	chinese	83	30.2		Bachelor	124	45.6%
	etc.	5	1.8		Master	20	7.3%
Gender	Male	136	49.5				
	Female	139	50.5				
Marital Status	Married	192	69.8				
	Single	82	29.8				
Age	20's	62	22.5	Occupation	Self-employed	48	17.5%
	30's	60	21.8		Office worker	104	37.8%
	40's	57	20.7		Housewife	50	18.2%
	50's	59	21.5		Student	23	8.4%
	60's	37	13.5		etc.	50	18.2%

(37.8%), 주부 50명(18.2%), 학생 23명(8.4%), 기타 50명(18.2%)이었다(Table 1).

2. 의료관광 인식 조사

가. 의료관광목적지 선택요소 조사

의료장비와 연령과의 상관관계 조사에서 20대는 3.62±0.85, 30대는 4.07±0.95, 40대는 4.11±0.76, 50대는 4.00±0.85, 60대는 3.78±0.85로 나와 20대와 60대의 경우 다른 연령대에 비해 평균점수가 낮았다.($p<0.05$)(Fig. 1).

의사의 명성에 대한 질문에서 미국인은 4.33±0.74, 중국인은 4.01±0.75, 일본인은 4.11±0.77, 기타는 4.80±0.45로 중국인의 평균이 낮았다($p<0.01$). 의료장비에 대한 질문에서 미국인은 4.11±0.87, 중국인은 3.75±0.84, 일본인은 3.87±0.87, 기타는 4.80±0.45로 중국인의 평균이 역시 가장 낮았다($p<0.01$). 의사와의 의사소통에 대한 질문에서 미국인은 4.51±0.71, 중국인은 4.17±0.83, 일본인은 4.25±0.84, 기타는 4.40±0.55로 중국인의 평균점수가 낮았고($p<0.05$), 사후치료관리에 대한 질문에서 미국인은 3.64±1.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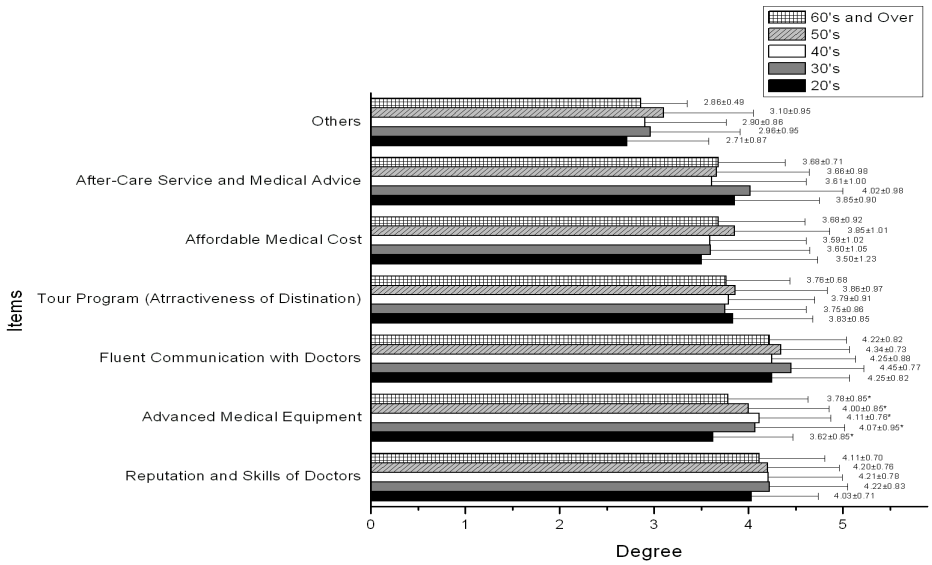

Fig. 1. Relationship between attributes on medical tourism destination and age(*p<0.05, **p<0.01, ***p<0.001)

www.kci.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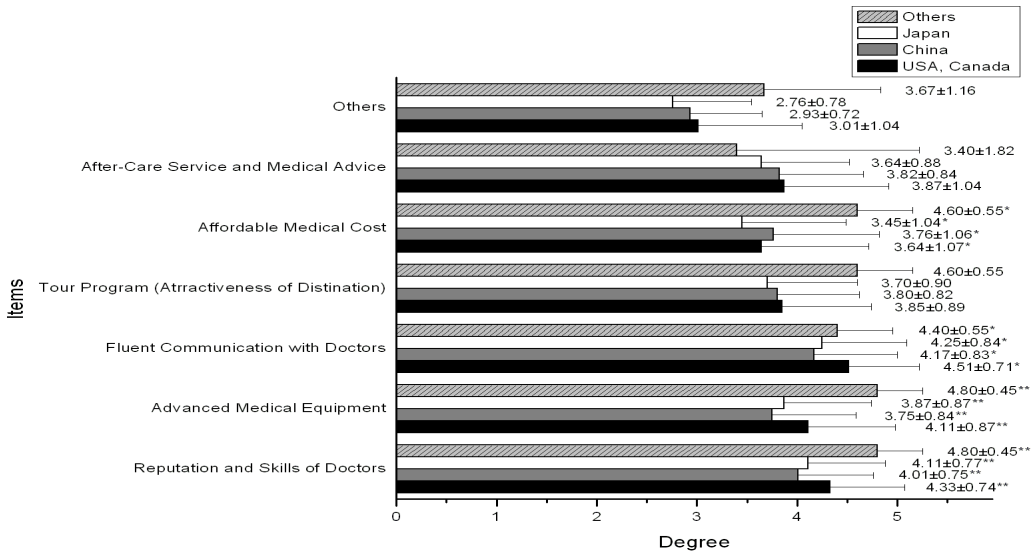

Fig. 2. Relationship between attributes on medical tourism destination and nationality(*p<0.05, **p<0.01, ***p<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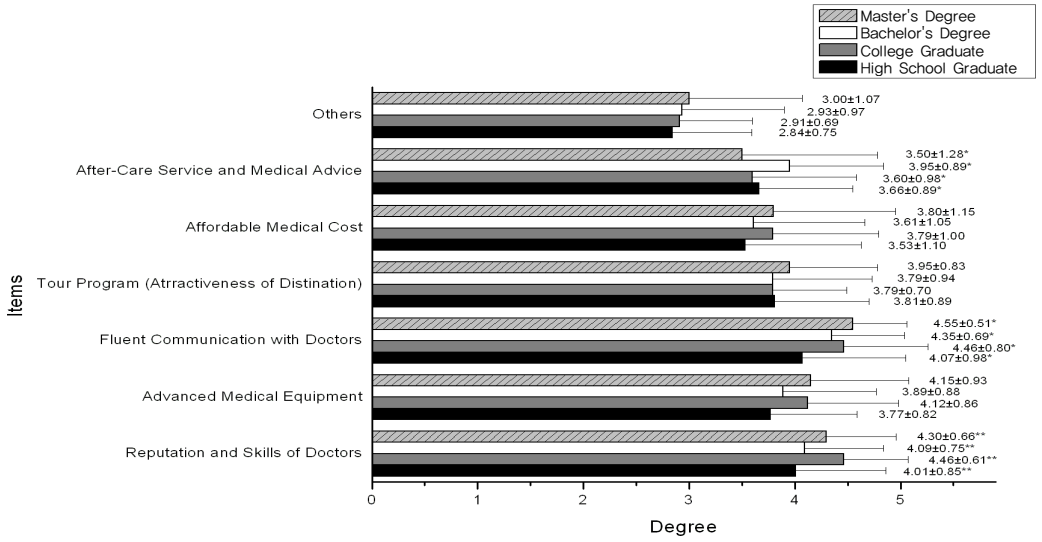

Fig. 3. Relationship between attributes on medical tourism destination and education level(*p<0.05, **p<0.01, ***p<0.001)

중국인은 3.76±1.06, 일본인은 3.45±1.04, 기타는 4.60±0.55로 일본인의 평균이 낮았다(p<0.05)(Fig. 2).

의사의 명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 고등학교 졸업자는 4.01±0.85, 2년제 졸업자는 4.46±0.61, 4년제 졸업자는 4.09±0.75, 대학원 졸업자는 4.30±0.66으로 2년제 졸업자의 평균이 가장 높았다(p<0.01). 의사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에 대한 질문에 대해 고등학교 졸업자는 4.07±0.98, 2년제 졸업자는 4.46±0.80, 4년제 졸업자는 4.35±0.69, 대학원 졸업자는 4.55±0.51로 대학원 졸업자의 평균이 가장 높았다(p<0.05). 반면 관광지로서의 매력에 대한 질문에 대해 고등학교 졸업자는 3.66±0.89, 2년제 졸업자는 3.60±0.98, 4년제 졸업자는 3.95±0.89, 대학원 졸업자는 3.50±1.28로 4년제 졸업자의 평균이 가장 높았다(p<0.05)(Fig. 3).

www.kci.go.kr

Table 2. Relationship between The Level of Recognition about Korean Medicine and Age Group

Age	Response	Observed	Expected	χ^2
20's	Yes	39	42.2	19.556**
	No	23	19.8	
30's	Yes	29	40.8	
	No	31	19.2	
40's	Yes	41	38.8	
	No	16	18.2	
50's	Yes	48	40.1	
	No	11	18.9	
60's	Yes	30	25.2	
	No	7	11.8	

(*p<0.05, **p<0.01, ***p<0.001)

Table 3. Relationship between The Level of Recognition on Korean Medicine and Nationality

Nationality	Response	Observed	Expected	χ^2
American	Yes	38	60.5	39.672***
	No	51	28.5	
Chinese	Yes	79	66.6	
	No	19	31.4	
Japanese	Yes	67	56.4	
	No	16	26.6	
Others	Yes	3	3.4	
	No	2	1.6	

(*p<0.05, **p<0.01, ***p<0.001)

3. 한의학 인식조사

가. 한의학 인지도 조사

한의학(동양의학)에 대하여 들어본 적이 있는가에 관한 질문에서 '예'라고 응답한 응답자는 187명(68.0%)이었던 반면 '아니오'라고 대답한 응답자는 88명(32.0%)이었다. 한의학(동양의학)에 대하여 들어본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20대와 30대는 '아니오'라고 응답한 사람이 더 많았고, 40대와 50대, 60대는 '예'라고 대답한 사람이 더 많아 연령이 높을수록 들어본 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Table 2).

한의학에 대하여 들어본 적이 있는 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중국과 일본인은 '그렇다'라는 응답을 한 사람이 많았고, 미국/캐나다와 같은 북미인은 '아니오'라고 응답한 사람이 더 많았다($p<0.001$)(Table 3).

나. 한의학 관심도 조사

'나는 한국의 한의학(동양의학)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서술에 대해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응답자는 18명(6.5%), '그렇다' 91명(33.1%), '보통이다' 116명(42.2%), '그렇지 않다' 41명(14.9%)이었다. 마지막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9명(3.3%)이었다. 북미인은 2.93±1.00로, 중국인은 3.22±0.75, 일본인은 3.63±0.84로 기타는 3.00±0.71로 일본인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Fig. 4).

4. 선호하는 한의학 치료 프로그램

가. 치료프로그램과 연령과의 관계

통증에 대한 질문에서 20대는 2.92±1.21, 30대는 3.42±1.12, 40대는 3.61±1.07, 50대는 3.74±0.89, 60대는 3.92±0.92의 평균이 나왔다($p<0.001$). 사상진단에 대한 질문 역시 20대는 3.17±1.04, 30대는 3.20±0.92, 40대는 3.50±0.85, 50대는 3.54±0.82, 60대는 3.57±0.93으로 평균이 나왔다($p<0.05$). 스킨케어에 대한 질문에서 20대는 3.57±1.18, 30대는 3.27±1.07, 40대는 3.32±1.01 50대는 3.05±0.97, 60대는 2.73±1.02로 평균이 나왔다($p<0.01$)(Fig. 5).

www.kci.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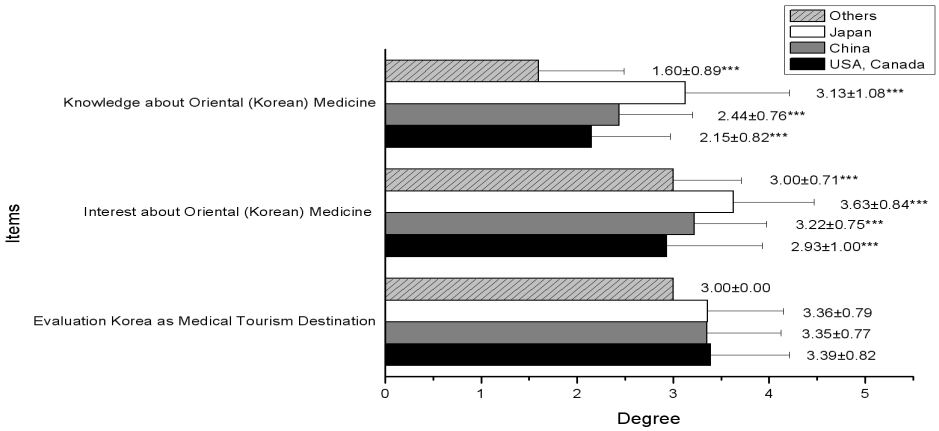

Fig. 4. The relationship between level of interest about Oriental(Korean) medicine and nationality(*p<0.05, **p<0.01, ***p<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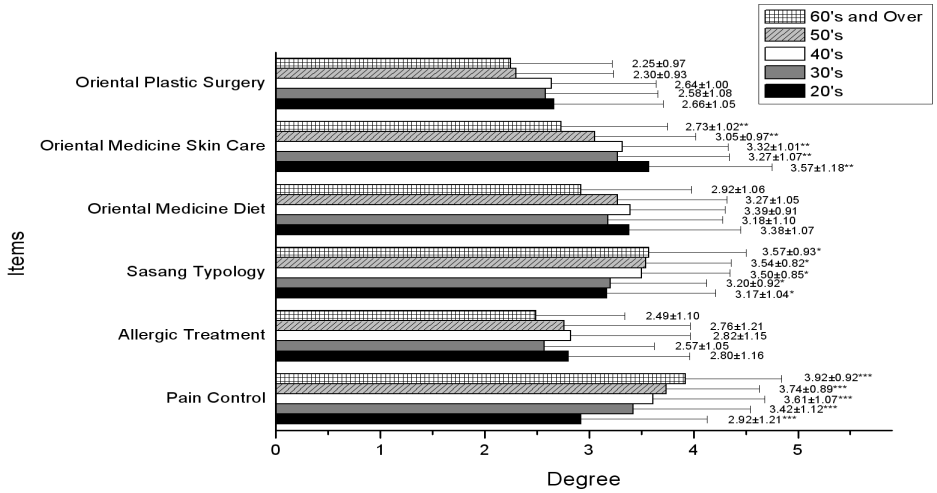

Fig. 5. Relationship between Korean medical treatment program and age group (*p<0.05, **p<0.01, ***p<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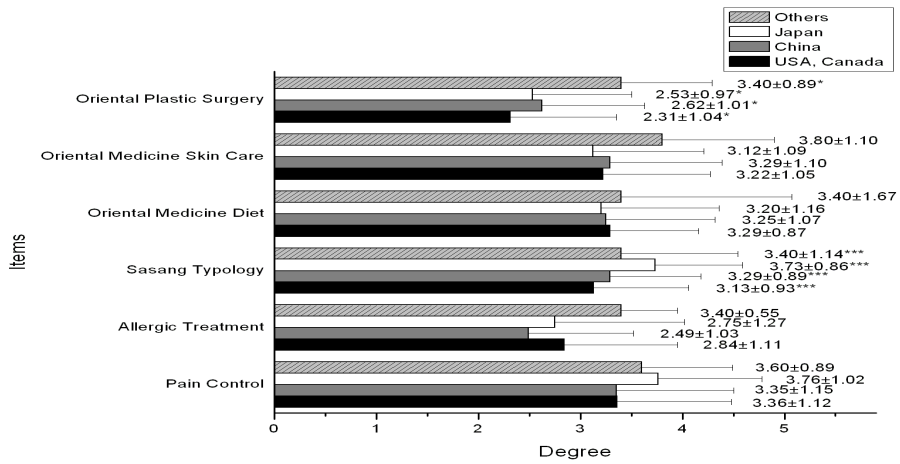

Fig. 6. Relationship between Korean medical treatment program and nationality(*p<0.05, **p<0.01, ***p<0.001)

www.kci.go.kr

나. 치료프로그램과 국적과의 관계

사상체질진단에 대한 질문에서 미국인은 3.13±0.93, 중국인은 3.29±0.89, 일본인은 3.73±0.86, 기타는 3.40±1.14로 평균이 나왔다($p<0.001$). 한방성형에 대한 질문에서 미국인은 2.31±1.04, 중국인은2.62±1.01, 일본인은 2.53±0.97, 기타는 3.40±0.89로 평균이 나왔다($p<0.05$)(Fig. 6).

5. 체질진단 지불의사

가. 로짓회귀분석 결과

제시금액 계수의 추정치가 통계학적으로 유의성이 있고, 제시금액에 대한 계수가 음(-)의 값으로 드러났다. 이는 제시금액이 높을수록 응답자들의 지불의사가 감소하고, 제시하는 금액이 낮을수록 지불의사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p<0.01$). 잠재력에 대한 평가계수에서는 잠재력이 낮다고 생각 할수록 지불의사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p<0.1$).

나. 양분선택형 CVM 모형을 적용한 지불의사액 추정 결과

CVM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일본인들은 62.69달러, 중국인들은 57.09달러, 북미인들은 65.50달러의 지불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Ⅳ. 考察

한의학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초연구로 설문조사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과들이 나왔다.

'의사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의 경우 북미인이 일본인과 중국인에 비하여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선진국 일수록 의사와의 의사소통에 중요성을 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의료진의 명성과 능력'의 경우 북미인과 일본인이 상대적으로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고, 2년제 졸업자의 경우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최신의료장비 도입'의 경우 30대~50대가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고, 북미인이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최신 의료장비의 도입 및 사용을 중요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관광지로써의 매력성'은 4년제 졸업자의 경우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후치료'의 경우 다른 국적의 응답자들에 비하여 중국인 응답자들이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잠재의료관광객들이 의료관광지를 선택할 때 선진국의 경우 소프트웨어 부분을 중요시하고, 연령대가 비교적 높을수록 하드웨어를 중요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국적과 연령, 학력 등에 따라 의료관광시장을 더욱 세분화 하여 이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부분을 중점으로 한 마케팅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40대, 50대, 60대의 경우는 '들어봤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더 많은 반면 20대와 30대는 한의학에 관하여 들어본 경험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과 일본인은 '예'라고 답한 사람이 더 많고, 북미인은 '아니오'라고 답한 사람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어 서구인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한의학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의료관광에 대한 잠재력이 높은 서구인들에게 적극적으로 한의학에 대해 알리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동양의학을 들어본 매체에 대한 질문에서는 방송매체를 통해서 들어보았다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서구인과 젊은 층을 타깃으로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 전략을 세워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선호하는 한의학 치료법과 관련해서는 통증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상진단의 경우 일본인의 관심도가 높았다. 한방성형의 경우 중국인의 경우 관심도가 가장 높았다. 각 국가별, 연령별 등에 따라 치료받기를 선호하는 질환이 다른 만큼 이에 대한 마케팅 전략을 세워 홍보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체질진단의 경우 어느 정도 가격대로 정하는 것이

Table 4. Results of Westerns and Asians's WTP

	Japanese	Chinese	US/Canada
Truncated mean	USD62.69	USD57.09	USD65.50

www.kci.go.kr

외국인들에게 가장 타당하게 받아들여질지 기준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재의 가치평가에 널리 쓰이는 조건부시장가치평가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이론을 체질진단에 적용하여 가장 적절한 진료비 수준을 연구하였다. 설문지 문항중 외국인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사상체질의학은 4가지체질로 구분하여 진단, 치료, 질병예방을한다는 내용을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번역하여 삽입하고 설문중 간단히 설명하였다. CVM은 1964년 Davis에 의해 처음으로 창안된 이후 경제학 분야를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 지금까지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14] 조건부가치평가법은 비시장재화의 시장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으나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시장을 설정하고 소비자에 대한 직접 설문조사를 통하여 비시장 재화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는 것으로 소비자에게 평가대상이 되는 재화의 가치를 직접 물어보는 지불의사가격을 화폐가치로 응답하도록 유도하는 가치측정기법이다.[15-18] 이를 이용하여 재화, 자원 그리고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지불의사(Willing-To-Pay, WTP)를 파악함으로써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화폐적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19-24] 현재 비시장재화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하여 이를 이용한 다양한 분석방법이 활용되고 있다.[25-29]

체질진단의 가치평가 및 체질진단 지불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체질진단 지불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지불액에 대하여 부의 관계를 형성하여 제시한 지불액이 적을수록 지불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우리나라가 의료관광 목적지로서의 잠재력이 낮다고 생각 할수록 지불의사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의료관광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문보영의 연구를 살펴보면 의료비용면에서 8위를 차지하여 고비용에 대해 만족도가 떨어졌다.[30]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관광에 대한 잠재력을 평가하는 부분에서 고비용을 이유로 잠재력이 낮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그에 반하여 사상체질에 대한 비용 역시 고비용으로 생각한다고 추정하면 이에 따른 지불액이 높아지는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고, 다른 하나로는 양방적인 의료관광에는 한계점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다른 나라와의 차이점으로 부각될 수 있는 한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으로 추정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발전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CVM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일본인들은 62.69달러, 중국인들은 57.09달러, 미국/캐나다와 같은 북미인들은 65.50달러의 지불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적별로 지불의사액이 다른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북미인들의 지불의사가 가장 높은 이유는 동양의학에 관한 호기심 및 자국의 높은 의료비가 응답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은 결과를 종합해 보면, 현재 우리나라의 한의학 의료관광에 대한 전망은 비교적 밝은 편이며, 이는 향후 발전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의학에 대한 국적별, 연령별, 성별 등에 따른 다양한 맞춤 홍보 전략이 필요하며, 특히 사상체질에 대한 인지도가 낮으나 이에 대한 지불의사가 충분히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이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외국인에 대한 한의학, 사상체질의학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Ⅴ. 結 論

1. 의료관광 선택요소는 연령, 국적, 교육수준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2. 한의학 인지도 조사에서 연령으로는 20대와 30대, 국적으로는 북미인의 인지도가 낮았다.
3. 한의학 관심도 조사에서 국적으로는 일본인의 평균이 가장 높았다.
4. 한의학 치료프로그램 조사에서 연령별로는 통증과 사상진단에 대해서는 60대의 평균이 가장 높고, 스킨케어에 대해서는 20대의 평균이 가장 높았다.
5. 한의학 치료프로그램 조사에서 국적별로는 사상체질진단은 일본인의 평균이 높고, 한방성형은 미국인의 평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6. 체질진단 지불의사는 지불액과 잠재력 평가와 역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7. 체질진단 비용으로는 일본인들은 62.69달러, 중국인들은 57.09달러, 미국/캐나다와 같은 북미인들은 65.50달러의 지불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www.kci.go.kr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국적, 연령, 성별, 지불의사 등을 고려한 사상체질의학 관광 상품 개발과 홍보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Ⅵ. 參考文獻

1. Roh. CC Blue Ocean Strategy for Activation of Medical Tourism in Tourism Industry. Korean Journal of Tourism Research. 2009;23(4):219-237.(Korean)
2. Edelheit, J. S. The US Healthcare Crisis rising supply of American patients. Medical Tourism. 2008;3:28-30.
3. Lee WK, Chung BW. A Case Study for the Activation of Medical Tourism. Korea Journal of Tourism and Hospitality Research. 2007;21(2): 389-406.(Korean)
4. Shin YS. Prospects and Development Measures for the Medical Tourism in Korea. Munmyung Yongie. 2008;21:41-70.(Korean)
5. Gim DY. A Research of the Strategy for Promoting and Trend on Medical Travel and Tourism. Journal of Culture and Tourism. 2007;9(2):43-56.(Korean)
6. Yoon HH, Lee EY. The Study on Enlarging the Market of Clinics through Medical Tour. Journal of bisiness management. 2008;15(1):173-188.(Korean)
7. Dann, G. M. S. Tourist Motivation: an Appraisal. Annals of Tourism Reasearch. 1981;8:117-125.
8. Fondness, D. Measuring Tourist Motivation. Annals of Tourism Research. 1994;21(3):555-581.
9. Iso-Ahola, S. E. Towards a Social Psychological Theory of Tourism Motivation. A Rejoinder. Annals of Tourism Research. 1982;9(2):256-262.
10. Crompton, J. L., & Lamb, C. W. Marketing government and social services. New York. Wiley. 1986:203-213.
11. Kotler. P. Marketing Management, 6th ed, Englewood Cliffs. N. J: Prentice-Hall Inc. 1989:132-157.
12. Mill, R. C. Tourism: The International Business, Engelwoodcliffs, Prentice Hall. Inc. 1990:145-152.
13. Mill, R. C., & Morrison, A. M. Why do people take vacation? The tourism system, Dubuque. Iowa. Kendall-Hunt Publish. 1998:257-270.
14. Seller, C., Stoll, J. R., & Chavas, J. P. Validation of Empirical Measures of Welfare Change, A Comparison of Nonmarket Techniques. Land Economics. 1985;61 (2):158.
15. Michell, R. C., & Carson, R. T. Using Surveys to Value Public Goods: The Contingent Valuation Method.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for Resources for the Future. 1989:4-39.
16. Rowe, R. D., D'arge R. C. & Brookshire, D. S. An Experiment on Economic Value of Visibility. Journal of Environmental Economics and Management. 1980; 7:1-19.
17. Hoevenagel, R. The contingent valuation method: scope and validity. Amsterdam: Free University. 1994:42-44.
18. Lee HC. Valuing Culture and Arts Event: A Contingent Valuation Analysis. Journal of Tourism Sciences. 2003; 6(4):129-143.(Korean)
19. Randall, A., Ives.B. C., & Clyde Eastman. Bidding Games for Valuation of Aesthetic Environmental Improvements. Journal of Environmental Economics and Management. 1974;1:132-149.
20. Herriges, J. A., & Shogren, J. F. Starting point bias in dichotomous choice valuation with follow-up questioning, Journal of Environment Economics and Management. 1996;.30:112-131.
21. Bishop, R. & Heberein, T. Measuring values of extra-market goods: Are indirect measures biased?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1979;62:926-930.
22. Freeman, A. M. The Measurement of environmental and resource value: Theory and methods. Washington DC: Resources for the Future. 1993:27-46.
23. Hanemann, W. M. A method of logical and empirical study of the recreation benefits form water quality improvement. Harvard University. Ph.D. Unpublished. 1978:423-438.
24. Mitchell, R. C., & Carson, R. T. An Experiment in Determining Willingness To Pay for National Water Quality Improvements. Washington DC: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Washington DC. 1981:117-121.
25. Lim JH, Ko TH, Hwang KS, Yang YC. The Economic Value Analysis for the Reformation of Public Transpo-

www.kci.go.kr

rtation Service Using Contingent Valuation Method. Korean Society and Public Administration. 2007;18(1): 177-195.(Korean)
26. Jung MS, Han HS, Park SH. A Study on the Value evaluation of Modern Cultural Heritage by Contingent Valuation Method. Korean Journal of Hospitality Administration. 2008;17(3):175-195.(Korean)
27. Heo CU. Valuation of Non-Market Tourism Resources with Different Payment Vehicle using a Contingent Valuation Method. Journal of Hospitality and Tourism Studies. 2006;8(3):133-146.(Korean)
28. Lee CK, Cho YM. Valuation of Experiential Tourism Using a Contingent Valuation Method. Korea Journal of Tourism and Hospitality Research. 2004;18(2):217-232.(Korean)
29. Lee HC, Ahn KA. The evalu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Loss using the Contingent Valuation Methods. Productivity review. 2008;22(2):1-24.(Korean)
30. Moon BY.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Medical Tourism Products. Journal of Hospitality and Tourism Studies. 2007;9(3):30-45.(Korean)

www.kci.go.kr